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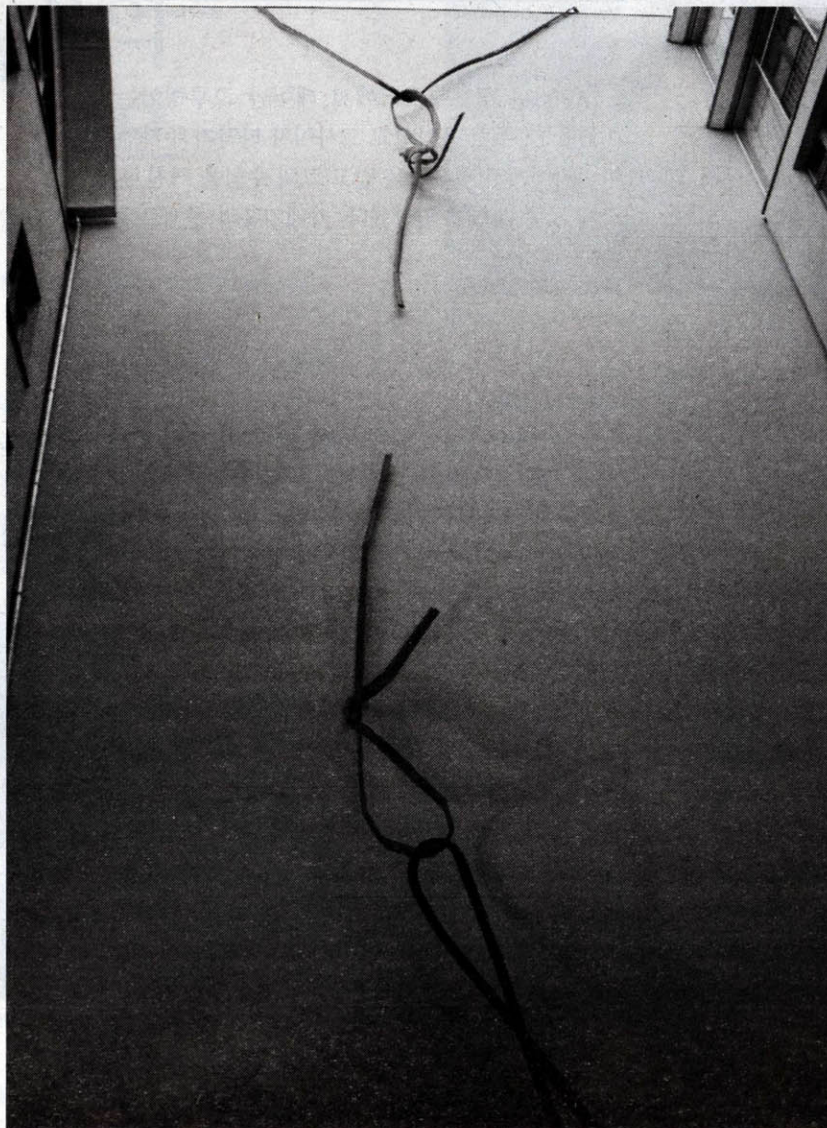
강철로 된 붉은 실

실이라면 가느다란 것을 연상하지만 붉은 실이라고 하면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핵심을 뜻하는 상징체계의 무게가 와닿는다. 붉은 실의 상징체계에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이 그렇게 공존한다. 베를린 갤러리 손에서 주관하는 설치 전시 '에두아르 하비체르와 강변의 붉은 실' 에도 그런 양면성이 공존한다.

2003년 지안 파올로 프란드슈트랄러는 에두아르 하비체르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하비체르의 예술에 대해 생각하자면 오늘날 인간을 파악해야 한다. 인간의 두려움이든 인간의 문제해결능력이든 함께 생각해야 한다. 유리, 나무, 돌(경우에 따라선 개울 조약돌) 같은 질료를 사용하고 이 질료를 강철로 묶어내면서 작가는 단단함과 연약함, 추락과 구원, 절망과 반응능력을 동시에 표현한다. 작품의 질료는 관람자에게 모순에 찬 상징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모두 바로 인간 존재안에 자리한 것들이다.”
(Ueberlegungen von Gian Paolo Prandstraller, 2003)

베를린 가을 바람 든 9월에는 붉은 실이냐 운동화 끈처럼 보이기도 하고 강에 꽂힌 낚시줄 같은 것이 21세기



26미터 높이 설치작품 (오르락 내리락 *auf oder ab*) 일부

Foto: Galerie Son

숫대처럼 서 있을 것이다. 낮익은 대도시 풍경 속으로 침입한 이 작품은 강철이 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실처럼 시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강철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갤러리 손에 따르면 슈프레 운하 유람선 지나가는 길에는 붉은 강철로 된 낚시줄에서부터 420 킬로그램에 달하는 '긴장관계 *Spannungen*'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점이 설치된다.

서산대사가 금강산에 찾아온 사명당에게 문턱에 발을 걸치고 물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겠냐, 나가는 것이겠냐?” 만화 한 장면이긴 하지만 같은 현상 혹은 같은 것에서 아주 다른 것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9월 베를린의 가을에 슈프레를 찾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화두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한낱 실밥같은 것이더냐. 강철이더냐.

yeh

2010.10.30 까지
Eduart Habicher
& Der rote Faden am Hafen
Galerie son
Wallstrasse 16
10179 berlin-mitte
T. ++49 (0) 17 85 05 55 52
화-토 11-18 uhr

** 에두아르드 하비체르는 1956년 이탈리아 빈슈가우 지방 말스에서 출생하여 플로렌스 미술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남부티를 메란에서 작업하고 있다. 무거운 소재를 사용하되 공간을 육중하게 지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슈프레는 하벨강의 지류이면서 하벨강보다 길다. 체코국경 지대 라우지츠(작센 주) 산동네에서 시작하여 베를린 동쪽 데머리츠 호수 Daemeritzsee로 흘러들어와 베를린의 심장을 거쳐 45킬로미터 가량 흐른 후 베를린 슈판다우에서 하벨강에 합류한다. 거의 5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슈프레 강의 일부는 1882년에서 1885년에 직선화하고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들면서 강변은 시멘트로 처리했다. 1960-70년 갈탄채취 지상작업 당시 지하수면이 높다 하여 물을 뺐아 슈프레로 넘긴 적이 있는데 갈탄채취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지하수 수면이 높아지자 슈프레 물이 역행하여 슈프레 물이 고갈되며 균형이 깨졌다. 베를린의 심장을 흐르는 슈프레 물이 거의 정지하거나 역행하는 현상이 거듭 발견되었다. 지금은 산업화 이후 나빠진 슈프레 수질을 개선하고 다시 수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기획사업 '슈프레 2011' 이 준비 중이다.